

무역전쟁 희생양은 결국 中企... 품목·지역 다변화가 답

비욘드 스톱

⑥ 트럼프만 바라보는 中企

공정거래협약 맺은 중기 3만 여 곳 대기업 그늘에 수출 입지 좁아져 사드 이어 무역전쟁 등에 발동동

#. 대기업 납품업체인 D사. 이 업체의 영업 담당 부사장 A씨는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밉다. 한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셀(Cell-전지) 등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위협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의 6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 그는 “대기업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영’을 하다보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수출물량이 줄면 치명적이다. 다른 해외기업과 거래를 뚫기도 쉽지 않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보호무역의 희생이 된다면 협력사인 중소기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각각 220개, 2만90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철강뿐만 아니라 제약, TV,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가입실적	27,043	18,292	11,468	17,202	15,096	12,262
대기업	1,829	1,153	337	228	-	-
중소기업	25,214	17,140	11,131	15,081	-	-

주: 2014년도부터는 대·중소기업 가입 실적이 구분돼 제공되지 않음.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국 기업의 세탁기 제품만 타깃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달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제약업은 다음번 무역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야다.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자불안식 中企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앞에서 중소기업은 울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경험 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

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가 있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대기업 그늘에 있다보니 글로벌 무역전쟁의 부담도 크다.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사는 600여 곳에 달한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는 40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여개에 달한다.

철강, 전자와 달리 중소기업이 주축인 섬유·제지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산업용 섬유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무역규제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미국 산업용 섬유 수입액은 2011

년 104억 달러에서 2016년 125억달러(연평균 +3.7%)로 증가했다. 다행히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생활용 섬유제품과는 연관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전쟁의 또다른 사생아로 꼽히는 환율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다. 대부분 중기들이 지난 2008년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 이후 환헤지 상품이나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환율 급락에 무방비 상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친데 뒤편 격으로 다른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내놓은 ‘2016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기업(9만3000개) 가운데 대기업(800개·0.8%)의 수출액이 3171억달러로 총수출액(4943억달러)의 64.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1700개) 수출액은 851억달러(17.2%), 중소기업(9만600개)은 921억달러(18.6%)다. 중소·중견 수출비중이 35.8%인 셈이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33.9%, 상위 100대 기업이 64.8%를 차지해 상위 기업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소통강화,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 수 있을까.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 대응 방

안’을 통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정보수집 및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 체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에도 대비해 자금이나 법률 등의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선 다변화도 강조된다.

세종대 경영대학 김대중 교수는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교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약 32%로 매우 높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내외이다. 따라서 과도한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 그 대안은 베트남,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NH농협그룹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자산운용 수익률 UP

그룹 차원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도입했던 NH농협금융지주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CIO 체제 도입 전과 비교해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이 23bp(1bp=0.01%)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그룹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15년도에 금융그룹 최초로 CIO 체제를 도입했다. 농협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지주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산 활용을 위해 지주내 자산운용전략부를 두고, 그룹차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과 전략적 투자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익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자산운용부문의 컨트롤타워로서 농협금융의 투자원칙과 절차 등 모범기준을 마련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그룹 시장전망·분석 역량을 집결한 연간 자산배분 전략(SAA)을 제시해 자회사가 이에 기반한 투자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 1월 자산운용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자산배분 전략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자회사 자산운용부문 평가방안에 자산배분 효과를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장기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SAA 이행을 자회사에 당부했다. 또 금융연구부와 NH투자증권 및 NH-아분디자산운용의 리서치 정보를 자산운용 딜러들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운용역량 및 시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

수도권 2기신도시 올 1만2000가구 분양... 물량 줄어 희소성 ↑

양주·동탄2·김포 등서 공급 2015년 이후 물량 감소세 공급 줄어 청약 경쟁 예고

올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 들어 내집 마련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2기신도시(양주·동탄2·운정·김포·한강·위례·검단·판교·평택고덕)에서는 1만2236가구가 분양된다. 1~2월 분양을 마친 1142가구를 포함하면 1만3378가구가 된다.

지역별로는 ▲양주신도시 4131가구 ▲위례신도시 3016가구 ▲김포한강신도시 1933가구 ▲검단신도시 1281가구 ▲동탄2신도시 1029가구 ▲운정신도시 846가구 등이다.

수도권 신도시 내 분양물량은 2015년 3만5232가구 이후 2016년 1만6911가구로 감소세다.

신규 공급이 꾸준히 줄어드는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더 이상 신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물량 예정〉

사업명	위치	총 가구수(실)	전용 면적(㎡)	분양 시기	건설사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	경기 양주신도시	2038	66~84	4월	대림산업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 파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1732	84	3월	(주)동일 (주)동일스위트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경기 위례신도시	1078	85초과	7월	현대엔지니어링
동탄역 예미지 3차	경기 동탄2신도시	489(아)* 420(오)	84~101	4월	금성백주주택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인천 검단신도시	1186	미정	상반기	호반건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아파트·(오)→오피스텔. /자료=부동산114

개발 자체를 못해 신도시 내 공급 물량이 꾸준히 소진됐기 때문이다.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고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으로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집값 상승률이 높아 청약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신규 택지지구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2기신도시의 마지막 물량에 수요가 몰릴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2기신도시 공급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2기신도시의 주요단지로는 대림산업이 오는 4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66~84㎡, 2038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도보 약 10분 거리로, 양주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위례신도시 A

3-4a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85㎡ 초과 107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북위례는 지하철 5호선 겨여역과 마천역 등이 가깝다. 현재 기반 시설이 조성 중이다.

금성백주주택은 오는 4월 경기 동탄 2신도시 C7블록에 ‘동탄역 예미지 3차’ 84~101㎡, 아파트 489가구와 오피스텔 420실 등 909가구를 공급한다. 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 노선도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호반건설은 상반기에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186가구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향후 교통시 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동일과 동일스위트는 지난 9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06, Ac-07블록에서 선보이는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파크’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1단지(Ac-06블록), 2단지(Ac-07b블록) 등 84㎡ 1732가구가. /이규성 기자 peace@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전문가-스타트업 잇는 ‘디톡스’ 세미나 개최

내달 3~4일 경영인 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캡프는 오는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을 초청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디톡스(D.TALKS)는 다양한 분야에

서 혁신적인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전문가를 초청,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번 디톡스는 4월 3~4일 양일간 디캡프 선릉에서 ‘스타트업 경영의 定道 : 사랑, 그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주제로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 2인이 참여한다.

참여 전문가로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액계 등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 가전제품과 관련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주)인바디의 차기철 대표와 ▲건설분야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현재 110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주)마이더스아이티 이형우 대표가 함께 한다.

두 전문가는 스타트업 경영인들에게 독창적인 경영철학과 조직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성과 기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디톡스 프로그램은 디캡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